

# 강희업 대광위원장 ‘대구·경북 광역교통 개선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’

## - 4일 안심~하양선·상화로 도로개선 현장 점검… 적기 개통 및 안전강화 당부 -

-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4월 4일(목) 오후 ‘대구1호선 안심~하양선’과 ‘달서구 상화로 도로개선’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, 적기 개통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였다.
  - 안심~하양선은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'19년에 착공하여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, 도심지 상습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‘달서구 상화로 도로개선 사업’은 '21년에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.
  
- 강 위원장은 1호선 안심~하양선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, “안심~하양선이 개통되면 지역 주민에게 정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철도이용 서비스가 확대됨은 물론, 출퇴근·통학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  - “특히, 철도는 적기에 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 
- 이어서, ‘달서구 상화로 도로개선’ 현장을 찾은 강 위원장은 “이 사업을 통해 극심했던 유천네거리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 - “기존 도로와 하천(진천천)에 인접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교통사고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, 그리고 하천 재해 예방에 특별히 신경써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  
- 끝으로, 강 위원장은 “광역철도,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지속 확충과 함께, 광역버스, 환승센터, 대구4호선(도시철도) 등 대구·경북 지역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2024. 4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